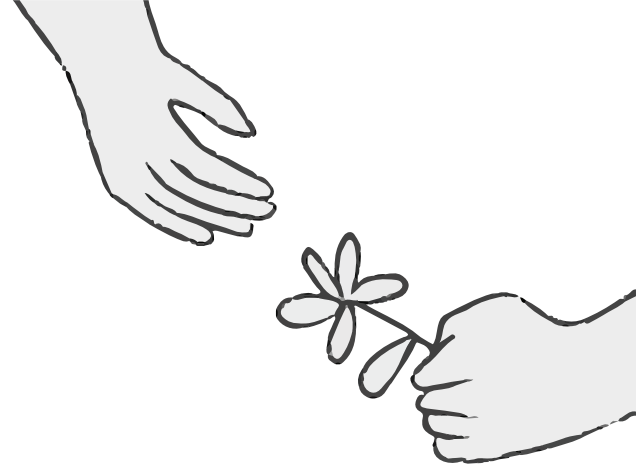
두근두근 인권으로 in

5



경찰청인권센터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Human Rights Center

© eviefjord / unsplash



인권을 생각합니다

경찰청 감사관실 **김동석**

5시 20분 출근 인사를 위해, 함께 사는, 75세가 된 어머니의 방문을 두드리면서 평생 힘들게 사신, 어머니의 인권을 생각합니다. 전라남도 신안군 도초도에서 4남 4녀의 장녀로 태어나 동생들의 뒷바라지를 이유로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하고 밭에서 일만 했던, 꿈 많은 처녀 시절, 어머니의 인권을 생각합니다. 결혼 후 남편이 술로만 살아 3남 1녀의 가정을 홀로 이끌었던 새댁, 고등학생이던 장남의 익사와 남편의 죽음 이후 아이 3명을 데리고 서울로 이사한 젊은 과부, 어머니의 인권을 생각합니다. 산동네를 전전하면서 식당일, 청소, 공사장 막일을 마다하지 않고 아들을 대학에 보낸, 중년의 과부, 어머니의 인권을 생각합니다. 아들 결혼 후 며느리와 함께 살면서 손녀 3명을 키우고, 한글을 배우고, 중학과정에 다니는, 이제는 너무 늙어버린, 어머니의 인권을 생각합니다.

새벽 5시 35분 첫 번째 지하철에 함께 탄, 사회의 주류로 보기 어려운 그들의 모습에서 그들이 감내해야 할 하루와 삶, 그들의 인권을 생각합니다. 6시 30분 정문을 지나 사무실에 오기까지 만나게 되는 안내실 직원, 청소하는 분을 보면서 청사의 안전과 관리, 깨끗한 환경 조성이라는 정말 중요한 일을 하면서도 제대로 인정받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그들의 인권을 생각합니다. 7시 30분 그 날의 중요 사건과 사고에 대한 당직 계장의 보고를 받으면서 범죄자와 피해자, 음주자 등에게 시달렸을, 현장 경찰관들의 고충과 어려움, 그들의 인권을 생각합니다.

업무시간, 계장들의 보고를 받으면서 치열한 승진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휘부와 직원 사이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그래서 그들의 삶과 에너지를 소모했을, 그들의 인권을 생각합니다. 담배를 피우는 점심시간, 그 어느 때보다 밝은 표정의 직원들을 보면서 때로는 과장과 계장에게, 때로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을, 그들의 인권을 생각합니다. 산책 중 민원실을 보면서 민원인 위주의 친절이라는 구호 아래 고질 민원과 악질 민원인에게 시달리는, 감정노동자, 그들의 인권을 생각합니다. 성희롱과 갑질 사건을 보면서 청춘의 꿈, 조직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무너지고, 삶마저 망가져 회복에 시간이 걸리는, 그들의 인권을 생각합니다.

업무를 마친 저녁 술자리, 손님의 요구에 최대한 친절히 응대하는 종업원의 모습에서 생존을 위해, 가족을 위해, 때로는 모욕도 감내하여야 하는, 그들의 인권을 생각합니다. 귀가 후 여전히 바쁜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딸을 보면서 불확실한 미래, 성공과 출세, 공부와 서열 경쟁에 청춘이 저당 잡힌, 그들의 인권을 생각합니다. 잠자리, 악성 민원인에게 시달려 세종시로 가버린, 그래서 금요일에만 올라오는 아내가 그립고 20년 넘게 시어머니와 함께 산 며느리, 3명의 엄마로서 버텨낸 직장 생활, 그 신산한 삶에 눈물이 나, 아내의 인권을 생각합니다.




덕분입니다 .
내가 꿈을 키워갈 수 있음은
덕분입니다.
내가 활짝 웃을 수 있음도
덕분입니다.
내가 맘껏 행복 누릴 수 있음은
덕분입니다.
내가 나의 작은 것 나눌 수 있음도
- 서윤덕, 그대 -
@ mrthetrain / unsplash



어린이날 100주년,
일상 속 '아동권리'를 돌아보자.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옹호 **고완석 팀장**



"우리는, 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봉사하는 친절한 경찰이다."

이는 경찰의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경찰헌장'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첫 번째 다짐이다.

@ designed by freepik

경찰은 모든 국민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영예로운 책임을 지고 있는데 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인권 존중'이다. 특히, 2022년 5월 5일, 100번째 '어린이날'을 맞아 일상 속 '아동 권리'를 돌아보고자 한다.

"어린이는 어른보다 더 새로운 사람입니다. 어린이를 어른보다 더 높게 대접하십시오."

100년 전, 일제강점기였던 당시 우리나라에는 인권침해와 차별이 만연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어린이는 가장 취약한 존재 중 하나였다. 당시 어린이들은 한 사람으로서 온전히 보호받거나 존중받지 못했으며, 그저 아직 덜 자란 사람으로 치부되고는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방정환 선생은 어린이가 완전한 인격으로 존중받고 자신의 권리를 누리며 행복하게 자라야 한다고 외쳤다. 1923년 5월 1일 어린이는 어른보다 더 새로운 사람이라며 어린이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라는 외침에 서울 거리는 아이들의 행렬로 가득 찼고, 이날의 외침은 어린이날의 시초가 되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2022년. 올해 어린이날은 그렇게 100주년을 맞이했다. 어린이가 완전한 인격으로 존중받기를 바랐던 100년 전 방정환 선생의 당부에 우리는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을까? 2022년 현재 우리 사회는 일상 속에서 어린이를 완전한 인격으로 존중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린이로 하여금 그들의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미디어 또는 일상 속에서 주린이, 골린이, 요린이 등 '~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주식, 골프, 요리 등 단어의 어미에 '린이'를 합성해 사용하는 것으로 어떤 영역의 초보자 또는 미숙한 사람을 의미한다.



소파 방정환 선생

(1899-1931 아동문학가 문화운동가)

어린이의 생활을 즐겁게 해 주십시오.
어린이는 항상 칭찬해가며 기르십시오.
어린이의 몸을 자주 주의해 살펴 주십시오.
희망을 위하여, 내일을 위하여
다 같이 어린이를 잘 키웁시다.

- 『어린이날의 약속』 중에서 -



이는 어린이를 미성숙하고 불완전한 존재로 보는 시각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단어 사용은 어린이를 불완전하고 미숙한 존재로만 고정하여 자꾸 쓰다 보면 편견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용어 사용은 어린이에게 어린이는 나약한 존재라는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어린이를 비하하고 차별하는 표현이 세대 간 차별, 젠더 간 차별로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한편, 최근 확산되고 있는 '노키즈존' 역시 일상 속에서 아동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이슈라고 할 수 있다. '노키즈존'이란 말 그대로 아이를 동반하고 입장할 수 없는 공간을 말하는데 주로 아이들이 소란스러울 경우 다른 이용자들이 불편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노키즈존'을 선언하는 매장이 주를 이룬다.

물론, 영업의 자유는 인정되어야 한다. 사업주가 해당 영업장의 이익을 위해 결정한 사항을 전면 부정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노키즈존'은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차별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노키즈존' 방침이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린이를 동반한 모든 보호자가 사업주나 다른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며, 무례한 행동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다른 이용자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어린이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사업주들이 누리는 영업의 자유보다 우선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어린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고 존중하기 위해 일상 속에서 '아동권리'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100년 전 방정환 선생의 바람은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을 것이다. 100년 전 방정환 선생의 당부를 기억하며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10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아동권리 보호' 그 중심에 경찰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광어와 도다리



@ 한용욱 / 산그림

서울 광진경찰서 형사과 **박원식 경정**

우리 집에 또 한 명의 경찰관이 생겼다. 아들이 경찰관이 된 것이다.
서울의 모 지구대에 발령받아 근무 중이다. 얼마 전 야간 당직 근무를 마치고 온 아들이 가족들에게 말했다. 112 신고를 접수받았는데 "횟집에서 도다리를 시켰는데 광어를 주었다."면서 주인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고, 심지어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보내달라."라며 먹다 남은 회를 들고 지구대까지 동행했다고 한다.

경찰 직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경찰이 별의별 사건을 다 처리한다지만 하다 하다 광어인지 도다리인지 판별하기 위해 감정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니... "어떻게 처리했냐"라는 나의 질문에 선배 경찰관이 민사 문제로 설득해서 돌려보냈다고 한다. 얼핏 보면 손님이 횟집을 상대로 생떼를 쓰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횟집 주인이 착각하고 광어를 도다리 대신 내놨다고 한다. 결국 신고자의 말이 맞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 신고자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했을까. 자신의 절대 미각을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았으니 말이다.

시민은 피해를 당하거나 억울한 일이 있으면 경찰을 찾는다. 경찰은 시민의 요청에 즉시 달려가 들어 주고 해결해줘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 어쩌면 경찰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경찰의 업무는 관례나 법의 기준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다양한 현실과 사례로 산재해있다. 고정된 인식의 틀에 갇혀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다가는 민원을 받기 일쑤일 것이다. 현명한 일선의 경찰관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경험으로 체득해서 이미 알고 있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의 입과 코를 가리고 있던 마스크로부터 해방되었다.
정부의 완화된 방역지침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것이다. 실외라는 조건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머지않아 실내까지 벗을 날을 기대해 본다. 그래도 대다수의 시민들은 불안감에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있다. 나 또한 마스크를 벗는 것이 어색하기 그지없다. 혹자는 그런다.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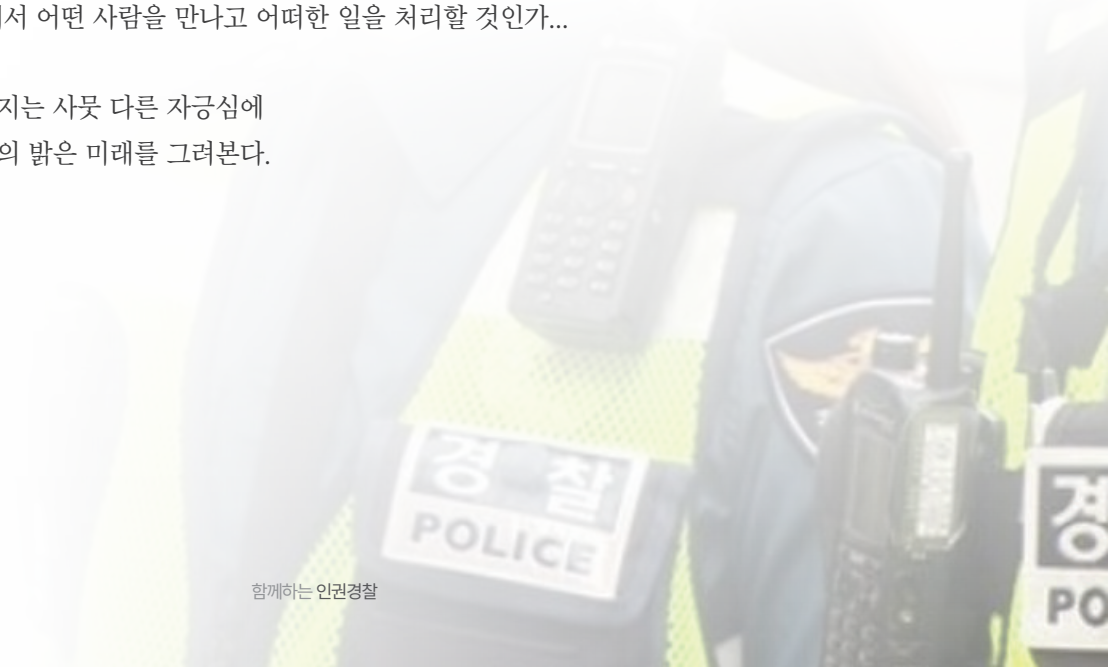
경찰은 코로나 팬데믹의 긴 터널을 지나는 과정에서 수사권 개혁을 통해 국가경찰, 자치경찰, 수사경찰로 분권화하고 독자적 수사권을 갖는 책임 수사기관으로 거듭났다. 이러한 변화로 일선 현장에는 새로운 절차가 생겨나고 단계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건 처리에 어려움과 불편도 겪게 되면서 곳곳에서 불만 섞인 신음 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경찰은 그간 마스크 착용으로 범죄자의 인상착의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용케 안정된 치안을 유지해온 것처럼 국민의 권익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안으로 받아 들이며 변화된 경찰에 자연스레 스며들어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

최근 '검수완박'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얼핏 보면 경찰에게 권한이 실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제 시민의 시선은 경찰에게로 향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경찰살이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관건은 국민이다.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고 시민의 권익과 인권이 중심이 되는 형사사법체계의 틀을 운영하고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이 경찰에게 있는지 시민의 통제와 감시의 촉은 더 예민해질 것이다.

경찰의 업무는 서류가 아닌 사람 중심이다. 국민의 삶과 생활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다. 경찰에 특화된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자칫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시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것인가, 잃을 것인가는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의 태도와 역량에 달려 있다. 법률은 존재 자체로서의 의미보다는 정의와 인권을 실현하는 현장 법 집행자인 경찰관을 뒷받침하는 제도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오늘도 어김없이 푸른 제복을 입고 시민 속으로 들어가는 아들을 바라본다.
그는 오늘 어느 곳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떠한 일을 처리할 것인가...

그의 제복에서 느껴지는 사뭇 다른 자긍심에
새롭게 변화할 경찰의 밝은 미래를 그려본다.





경기 분당경찰서 수사과 **임정선 순경**

> *"천재성에는 인종이 없고*
> *강인함에는 남녀가 없으며*
> *용기에는 한계가 없다."*
>
> *- 영화 '히든 피겨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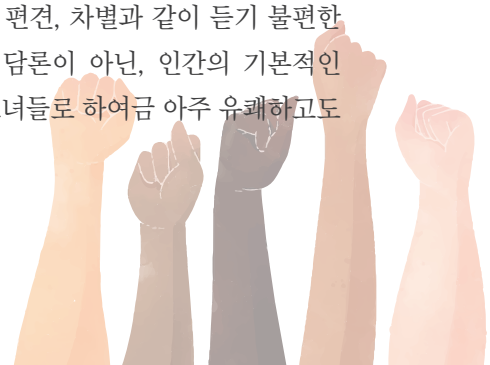
히든 피겨스는 196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실화를 바탕으로 그린 사회적 차별과 한계를 뛰어넘은 숨겨진 천재 3인의 흑인 여성 과학자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히든 피겨스에서 '피겨스'에는 중의적인 뜻이 담겨 있다. 하나는 숫자를 뜻하고 또 하나는 사람을 뜻한다. 이 영화 또한 제목 그대로 역사 속에 숨겨진 숫자들을 다루는 숨겨진 인물들을 보여주고 있다.



나사의 역사를 바꾼 천재 수학자 캐서린 존슨 /
'인간 계산기' 나사 최초 흑인 여성 책임자 도로시 본 /
흑인 여성 엔지니어 메리 잭슨

영화 주인공 캐서린은 천부적인 수학 능력으로 NASA 엔지니어 프로젝트에 참여하지만, 흑인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중요 회의에서 배제되고 차별받으면서 동료로서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던 어느 날 캐서린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저도 들어가서 해야겠어요.' 캐서린은 천문학적인 숫자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수학적 능력을 선보이며 마침내 NASA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다.

영화 속 NASA의 사무실에는 유색 전용 화장실과 유색 전용 마시는 물이 따로 존재한다. 바깥 속 세상도 마찬가지이다. 버스를 타면 유색 전용 좌석이 따로 존재한다. 영화 속 모든 것이 흑인과 백인을 구별한다. 특히 캐서린이 유색인종 전용 화장실을 쓰기 위해 800m를 달리는 장면은 그녀의 고충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자 필자의 기억에도 선명히 남는 장면이다. 나중에는 이 유색인종 전용 표지판을 NASA의 해리슨 부장이 부수는 장면과 함께 '유색인종 화장실은 없어.', '나사에선 모두가 같은 색 소변을 본다.'라고 외치는 장면이 나온다. 이 영화에서는 편견, 차별과 같이 듣기 불편한 단어들이 종종 등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불편한 주제를 거창한 담론이 아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려는 구체적 현실에서 풀어내는 설정으로 세 명의 그녀들로 하여금 아주 유쾌하고도 담담하게 표현하고 있다.





메리 잭슨이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 백인 학교에 입학하기 위하여 재판을 받으면서 판사에게 호소하는 장면, 도로시 번이 열심히 컴퓨터를 숙지하고 배운 끝에 스스로의 능력으로 일자리를 쟁취하고 함께 일하는 전산원들을 이끌고 앞장서서 당당하게 걷는 장면, 캐서린 존슨이 마침내 새로운 수학공식을 찾아내면서 NASA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동료 직원들의 인정을 받는 장면과 함께 차별의 장벽을 걷어내며 영화는 끝이 난다.

필자는 각기 다른 위치에서 세상의 편견과 차별에 맞서는 세 여성의 모습을 그려내는 세 배우의 완벽한 앙상블이 통쾌한 카타르시스처럼 느껴졌다. 필자는 이 영화의 이야기가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인권 감수성'의 싹을 틔우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준 영화이기도 하며, 이번 인권 소재의 영화로 히든 피겨스를 선택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자, 그럼 이제 1960년대 NASA의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로 시선을 옮겨보자. 시대는 빠르게 변하였고 성 평등, 인종 평등과 같이 '평등'과 '인권'에 대한 사람들의 사회적 문제의식 수준 또한 상당히 높아졌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어딘지 잘 모르게 숨어있던 차별이 문득 등장하는 것을 경험하곤 한다. 필자는 이번 '필름 안 인권' 주제를 통해 청자들이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서 인권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

편견과 차별의 견고한 벽을 부수고 평등한 자리를 내는 맨 첫 사람,
우리 안의 히든 피겨스는 누구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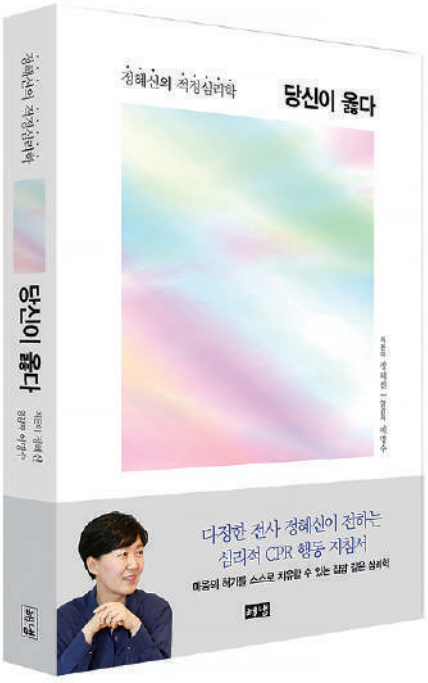
● 영화 후기는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내 두 손을 포개 살려내는, 심리적 CP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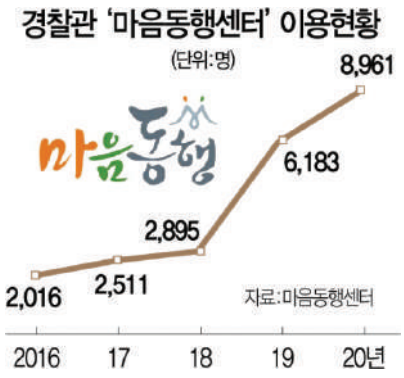
강원 인제경찰서 기린파출소 **조한슬 순경**

한 방울 한 방울의 물이 모여 흐르는 강을 이루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경찰관이 모여 대한민국 경찰이 됩니다. 당신은 경찰의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무래도 우리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이기에 친절함과 다정함보다는 무거움, 근엄함 같은 다소 진지한 모습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렇다면 약 13만 명의 경찰관들이 다 비슷한 개성을 지녔을까요? 그건 단호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들 어느 정도는 사회에서 원하는, 혹은 만들어진 경찰다운 이미지 틀에 맞추며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화난 듯, 무뚝뚝한 표정으로 바삐 걸어가는 강남역 한복판의 무리 속 청년에게 말을 걸었을 때, 웃으면 가벼워 보이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 표정을 감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이제는 육체적으로 땀 흘리는 노동이 아닌, 사회나 기업의 입맛에 맞는 인재가 되기 위한 '감정 노동'을 하는 세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여기 「당신이 옳다」에서는 감정이 존재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나만의 가치관이나 신념, 견해는 사실 알고 보면 내 부모의 것이거나, 집단적으로 형성된 것일 수도 있으나 내가 느끼는 감정만은 오로지 나의 것이기에 "나"가 흐려지면 사람은 반드시 병듭니다.' 그래서일까요, 감정 노동에 시달리는 우리 조직에서는 지난 5년 새 우울증과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는 경찰관이 45%, 정신과 상담자는 31%가 증가했으며 (건강보험공단 조사, 2016~2020) 이 기간 동안 소중한 동료 109명이 정신적인 문제를 호소하며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경찰청 자료, 2016~2021. 8.)





이에 경찰청은 '마음 동행 센터'운영과 심리 상담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직업 특성상 출동을 나가면 맞닥뜨리는 돌발적인 순간들과 화가 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달래고 제지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 경찰관은 또다시 정신적인 외상에 쉽게 노출됩니다. 경찰은 누군가 곤경에 처했을 때 만나는 첫 번째 사람이기에 현장 조치와 동시에 해야 하는 일은 적극적인 의견 청취, 즉 불의의 사고를 당한 대상자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살피는 일이 포함됩니다. '민중의 지팡이'라는 별명이 무색하지 않도록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있어 지탱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경찰은 정작 자신의 마음은 돌보지 못해서 아파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어떤 일이든 척척 군더더기 없이 사건 처리를 잘하는 유능한 경찰관들은 많지만, 교대 근무 속 육체적인 강인함과 더불어 정신적으로 건강한 경찰관들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늘어나는 스토킹 범죄로 인한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여름철엔 물놀이 시설 점검과 겨울엔 결빙 도로 점검, 또 지금 같은 선거철에는 선거 벽보 감시까지 점점 넓어져만 가는 경찰의 업무 범위와는 반대로 턱없이 부족한 마음 건강 담당자의 수는 경찰이 업무 중 받는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치열한 삶 속에서 「당신의 옳다」의 저자 정혜신 의사는 30여 년간의 정신과 진료 일지를 정리하며 어떤 진료나 약물보다 뛰어난 효과를 가진 단 한 가지, '공감의 힘'을 제시합니다.

먼저, 공감을 하기에 앞서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은 바로 '감정'입니다. 그리고 감정을 느끼려면 '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이 절대적인 내 역할이라는 생각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이나 퇴직으로 나 자체라고 믿어 의심치 않던 일이 없어져 그 가치가 빛을 잃을 때 공황발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하게 깎인 수많은 입체적인 면면들 때문에 빛이 드는 방향에 따라 빛깔과 분위기가 달라지는 예각의 크리스탈 조각 같은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런 존재를 집단적 정체성이라는 둔각으로 뭉개는 일은 자신에 대한 폭력인 동시에 자기 은폐나 억압, 사람이란 존재에 대한 무지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내가 드러나는 순간은 앞서 말했다시피 누군가 개입할 수 없는 오롯한 나만의 감정을 느끼고 그것을 표현할 때입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갖는 모든 감정을 옳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저자는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죽고 싶은 마음조차 옳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충고나 판단 없는, 감정 그 자체에 대한 정확한 공감에 있습니다. 언젠가 "죽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바람이나 쐬고 와. 남들도 다 거기서 거기야"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까? 사실 벼랑 끝에 선 누군가에게 저 말이 도움이 될 거라 믿어서라기보다 달리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해줄 말은 별로 필요치 않습니다. 공감에서 필요한 것은 나의 말보다는 그의 말입니다. 그가 대답이 없어도, 대답을 피하거나 못해도 그의 존재에 대한 주목과 죽어버리고 싶을 만큼 힘겹다는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받아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는 좌절감에서 벗어납니다. 다만 누군가의 감정 위에 나를 포개는 공감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 자신을 놓지 않는 일입니다. 자칫 상대방에게 더 집중하기 위해 자기감정은 누르고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감정 노동에 시달리게 되면 결국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너를 공감하다 보면 내 상처가 드러나서 아프기도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나도 공감받고 너도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공감하는 사람이 받게 되는 특별한 선물이다.〉 라는 저자의 말은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공감 능력은 타고나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나는 원래 공감이 좀 서툴러'라는 게으른 변명을 늘어놓았던 지난날을 부끄러워하며 읽은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고한 하루를 살아가는 경찰청 동료분들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하고 글을 끝맺으려 합니다.

"요즘 반장님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 김대중 / 일러스트레이터

● 독서 후기는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aaronburden / unsplash